

제6실 | 서예 | 호류지에 전래된 법화경

N-12 법화경

황마지에 옅은 먹으로 괘선을 그은 용지에 『법화경』 8권을 필사한 작품으로, 한 행에 17자가 들어갑니다. 글씨가 약간 굵고, 힘있는 필치로 쓰였으며, 8권 모두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라시대의 정돈되고 단정한 사경 작품과 비교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헤이안시대에 걸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

제6실 | 염직 | 나라시대의 번

번이란 불당을 장식하고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데 사용하는 것발입니다. 호류지보물관에는 호류지에 전해져온 아스카시대(7세기)부터 나라시대(8세기)까지의 번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. 또한 쇼무 천황의 1주기 법회(757년) 장소에서 사용되고 쇼소인에 전해져온 번도 함께 소장되어 있습니다.

N-319-3 평직비단 딱지무늬 번

이 번의 평(사각형 구획)은 정사각형으로, 각 평마다 삼각형 평직비단을 다른 색깔로 4장 꿰매어 맞추었습니다. 쇼소인에도 같은 모양의 비단 번이 있으므로, 호류지 계통의 번에서 쇼소인 계통의 번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번으로 추정됩니다.

N-319-22 능직비단 딱지무늬 겹누비 번 조각

N-319-3 번과 마찬가지로 평은 정사각형이며, 각 평에는 삼각형 능직비단을 각기 다른 색깔로 겹면과 안쪽면에 4장씩 꿰매어 맞추었습니다.

N-319-23 평직비단 딱지무늬 겹누비 번 조각

평직비단 딱지무늬 번(N-319-3)과 마찬가지로 색깔이 다른 평직비단으로 제작된 번인데, 그 크기는 2배 가까이 됩니다.

N-319-2 비단 대각선 겹누비 번 조각

삼각형 모양으로 재단한 2종류의 금(비단)을 대각선으로 꿰매어 맞추고, 번신의 평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. 아스카시대의 번에서는 평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었지만, 나라시대에 들어서면 중국 당시대의 유행에 맞추어 정사각형 평이 등장합니다. 이 번은 쇼무 천황의 1주기 법회에서 사용된 번입니다.

N-319-4 나 꽃모양을 꿰맨 번

나(羅)는 비치는 직물의 일종입니다. 나에 물결치는 윤곽선을 지닌 다이아몬드 모양 구획을 배치한 번입니다. 구획 안에는 금실로 꽃모양을 넣었으며,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제작되었습니다. 이 번도 쇼무 천황의 1주기 법회에서 사용된 것입니다.